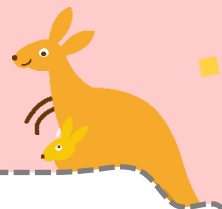


A+ddict 중간과제

# 당순하게

문서현 유재훈 이정운 정두용 황채원

## 지난 이야기



중독 예방에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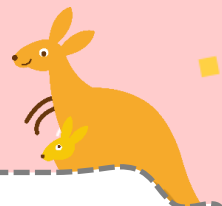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영유아  
식단 케어 서비스까지 구체화

당순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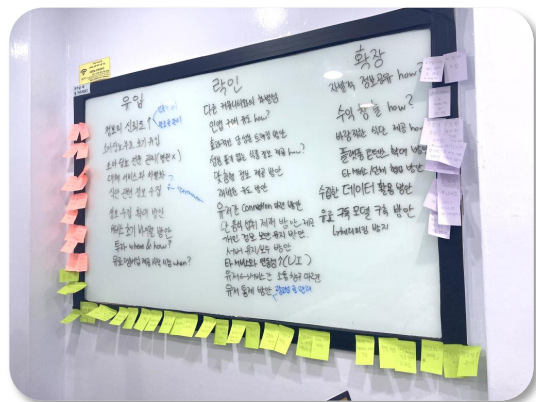


Ideation

# Ide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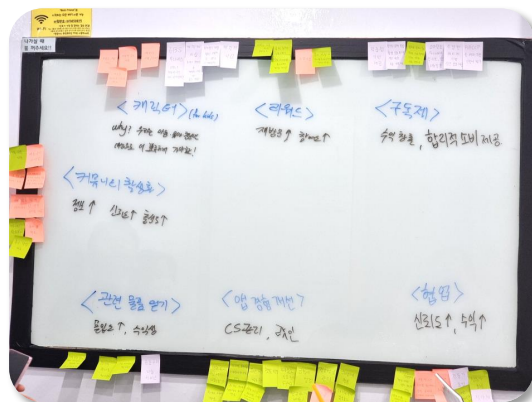


## Opportunity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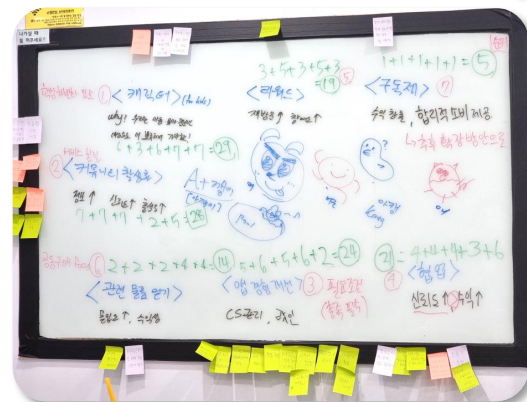
우입 → 락인 → 확장 단계로  
분류하여 **HMW** 작성  
+ **기회 영역** 만들기

## Brainstorming



HMW 바탕 **해결방안 도출**  
& **7개 영역으로 Re-clustering**

## Prioritizing



7 scales로 clustering 된  
영역 및 해결방안들을  
**우선순위화**

# Ide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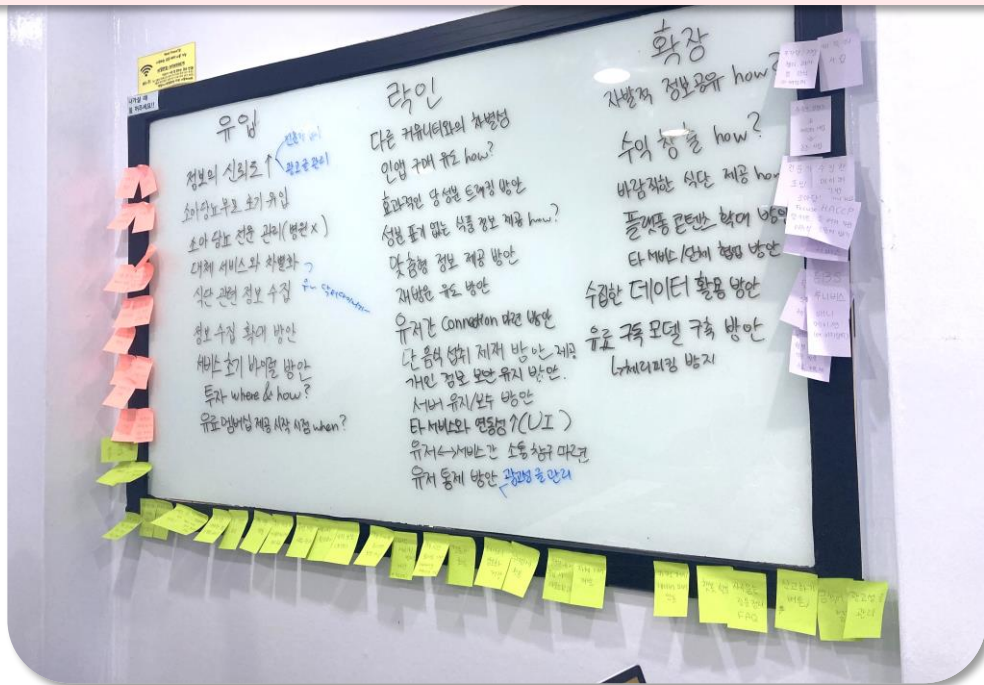


## Opportunity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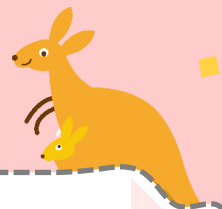
유입 → 락인 → 확장 단계로

분류하여 **HMW**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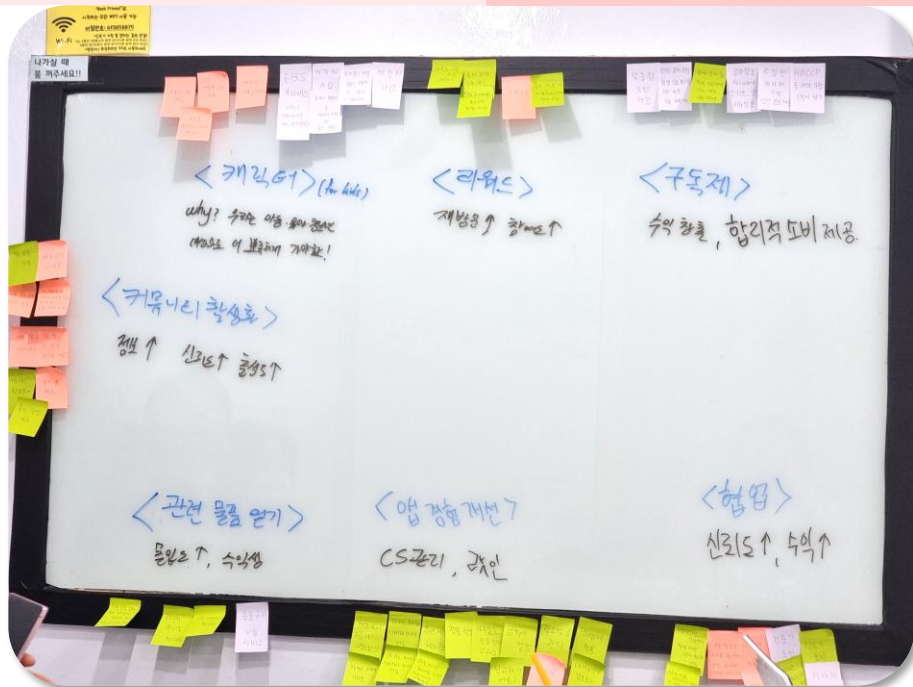
+ **기회 영역** 만들기



# Ide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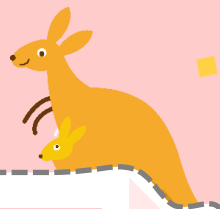


## Brainstorm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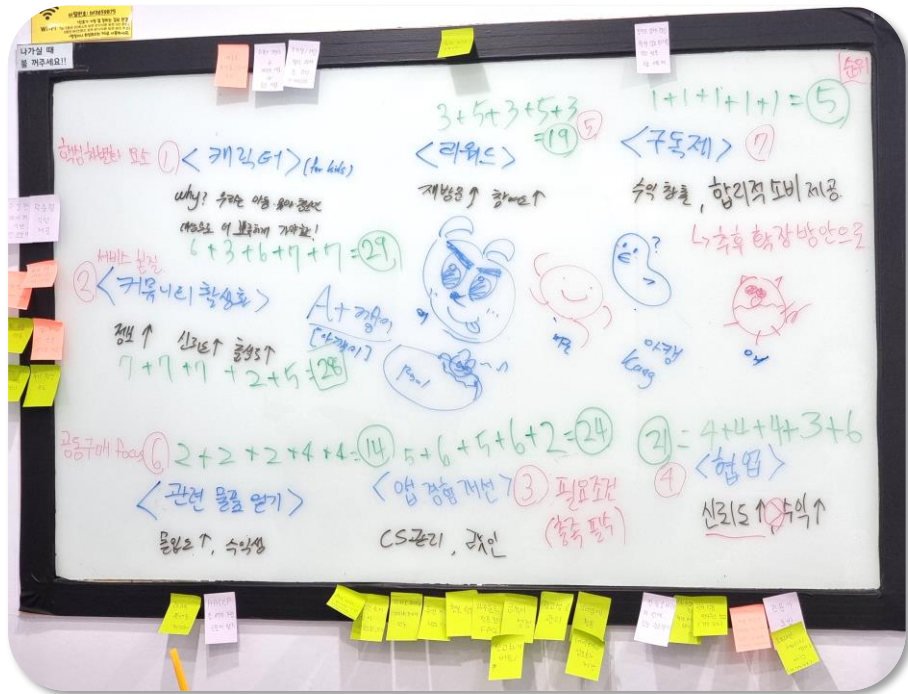


HMW 바탕 **해결방안 도출**  
& **7개** 영역으로 **Re-clustering**

# Ide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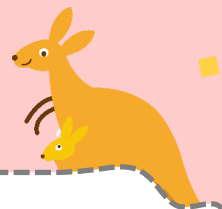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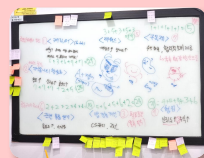


## Prioritizing



7 scales로 clustering 된  
영역 및 해결방안들을  
**우선순위화**

# Ideation



1

**캐릭터**

아동, 유아, 청소년 대상으로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컨셉!

유튜브 콘텐츠, 캐릭터 사업, 굿즈 사업,  
무가당/저당 캐릭터 젤리, 과자 등 간식...

2

**커뮤니티  
활성화**

정보, 신뢰도, 충성도  
모두 높이는 방법!

후기 작성 유도, 앱 내 당 성분 분석툴 제공,  
자발적 기록 유도, 바이럴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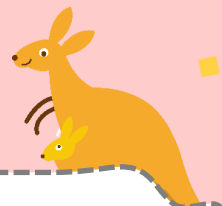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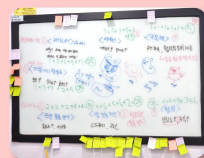
**앱 경험  
개선**

기본적으로 lock-in 을 위해  
꼭 갖춰야 할 **CS관리**

FAQ, 금칙어 설정, 신고하기 버튼,  
각종 결제 서비스 연동, 광고성 글 관리



# Ideation



4

**협업**

수익 증진보다는  
**신뢰도 상승을 위해!**

영양학/당뇨 관련 전문가 섭외, 전국 소아과 연계,  
한국 식품 연구원 연계 ...

5

**리워드**

**Retention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출석보상...

6

**물품  
얻기**

앱 체류시간을 늘리는  
또 다른 수익창출 방안

공동구매 플랫폼 활성화, HACCP 기관 인증...

7

**구독제**

(추후 확장 방안)

**안정적 수익창출,**  
**합리적 소비 제공**

밀키트 업체와 협업, 월 별 당뇨 환자용 식단  
배송, 유료 구독제

당순하게



Persona

# Persona

Main target



**이름** 문채현  
**나이** 38살  
**성별** 여 (女)  
**직업** (과거 D 화재 대리)  
현재 가정주부

## Goals & Roles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만큼 활기차게  
못 하는 거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다.

## Needs

내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식습관 마련**  
가장 **품질**이 좋고 **신뢰**할 수 있는 **보조 기구** 활용  
내 아이와 나의 **심적 안정감** 모색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 제공**

# Persona

## Main target

## Scenario



**이름** 문채현  
**나이** 38살  
**성별** 여 (女)  
**직업** (과거 D 화재 대리)  
현재 가정주부

오늘도 채현씨는 서원이 손에 들린 초콜릿을 내려놓게 하느라 진땀을 뺐다. 서원은 채현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럽게 울기만 한다.

문득 서원이에게 당뇨라는 병에 대해 설명하던 때를 떠올린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였을까. 임신 초기부터 조심했던 채현씨였지만, 그녀는 아이를 낳기 전 임신 당뇨를 진단 받았다. 그 때부터 시작된 당뇨에 대한 정보 수집은 본인보다는 뱃 속의 서원이를 위한 발악이었다. 부모가 잘 관리하면 임신 당뇨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도 괜찮을 수 있다는 말에 모든 희망을 걸었지만, 결국 서원은 4살이 되던 해 1형 당뇨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그나마 주기적으로 검사받으려 병원에 와서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었다고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지만, 그녀에게는 끝도 없는 절망감만이 물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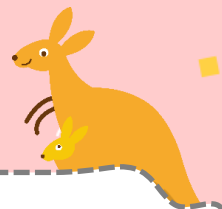
일이 인생의 전부였던 채현씨는 만삭 직전까지도 회사를 다닐 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서원의 당뇨 진단 순간 그녀는 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다. 전업 주부가 된 채현씨가 요즘 느끼는 우울감은 살면서 느껴본 그 어떤 우울감보다 달랐다. 사람을 좋아하는 서원이에게 어린이 집을 계속 보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서원을 교사가 충분히 케어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가지 않아 눈물을 머금고 어린이 집을 그만두게 했다. 대신 서원과 함께 당뇨 캠프에 주기적으로 참석해 친구들을 사귀게 해주고 있지만, 당뇨 캠프 자체가 자주 열리지 않을 뿐더러, 전국에서 모이는 캠프이기 때문에 어린이 집에 다닐 때처럼 동네 친구를 사귀지는 못 한다.

일도 그만두고, 서원에게만 전념한 채현씨에게는 이제 의지할 친구들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다. 채현씨 스스로 느끼는 우울감을 떨쳐내기 위해 몇 번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해보려 했지만, '내가 놓고 있는 사이 서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서원이만 생각하는 엄마의 노력이 무색하게, 서원은 캠프 선생님 얘기만 한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매일 화내는 엄마보다 잘 놀아주고 이해해 주는 캠프 선생님이 좋다고 한다. 어디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만 쌓여가는 채현씨는 남편에게도 차마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가 없다. 채현씨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일반 직장인이던 남편은 퇴근 후 대리 운전까지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힘든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까지 털어놓는 일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채현씨다.

그런 채현씨는 요즘 네이버 카페 '작은 손의 1형 당뇨'로 힘을 얻는다. 저당 식품이라고 해서 사 먹었는데, 혈당이 급상승해서 고비를 겪었던 경험 이후, 식품 업체의 마케팅을 불신하게 된 그녀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찾고자 이 카페를 찾게 되었다. '작은 손의 1형 당뇨'에서 각기 다른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가 먹어보니 괜찮았던 음식 종류와 양 등을 공유해 주어서, 이전 어떤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늘 이 카페에서 확인을 받는다. 나아가 채현씨는 활발한 카페 활동을 하며 알게 된 부모들과 서로 고민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며 그녀는 작게나마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는다. 그러나 네이버 카페에 모든 음식 정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체형/무게/개월수 등의 특징에 따라 먹어도 되는 총량이 달라지는데 익명의 커뮤니티이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해서 이 카페 또한 100% 신뢰할 수 없다. 또, 급하게 음식 정보를 찾아야 하는 순간에는 카페에서 단순 검색 기능만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취득하기가 힘들어서, 정확한 정보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Persona

Main target



## Goals & Roles

친구들과 더 오랜 시간 보내고 싶고  
맛있는 간식을 먹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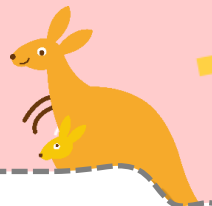
## Needs

친구들과 재밌게 보내고 싶음  
주사기와 혈당 체크기 두려움  
집에 있을 때 심심함과 지겨움  
엄마랑 새롭게 놀고 싶은 방법

이름	황서원
나이	7살
성별	여 (女)
직업	1형 당뇨 환자 4살 발병

# Persona

## Main target



## Scenario

서원이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는 일은 눈을 감고 손가락을 살짝 짚려야 한다. 엄마는 서원이가 아파서 매일 매일 확인해야한다고 한다. 서원이 손가락에 피를 내서 어떤 장치에 똑 떨어뜨려서 확인하는데 이제는 자주해서 많이 아프지 않았다.

엄마가 그래도 잘하고 나면 엄마가 직접 만든 간식을 해줘서 기분이 좋다. 원래는 엄마랑 밥을 함께 먹고 어린이집에 같이 갔는데 요즘에는 계속 엄마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있다. 가끔 주말에는 재밌는 캠프에 가서 선생님이랑 간식도 먹고 애들이랑 함께 놀고 오면 가장 기분이 좋다.

서원이는 엄마랑 붙어 있고 엄마가 바쁠 때면 할머니랑 같이 놀고 가끔 캠프를 갈 때도 있다. 오늘은 엄마가 은행을 가야해서 할머니 집에 잠깐 있었다. 할머니랑 같이 공원에 가서 강아지도 보고 꽃도 보고하면 너무 재밌다.

특히 할머니랑 마트에 가면 할머니가 사주는 장난감 초콜릿이 가장 좋다. 엄마랑 함께 같이 마트를 갈 때면 항상 못 사고 나왔는데 할머니는 엄마 몰래 가끔 하나씩 사줘서 할머니가 천사라고 생각한다.

집에서와서 할머니랑 같이 캠프에서 받은 그림으로 색칠연습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 색칠 그림과 캠프선생님이 알려주신 종이접기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다. 할머니가 점심 먹기전에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해서 맞고나서 밥을 먹었다. 주사기는 볼때마다 무서운데 나는 왜 매일 맞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서원이가 맞기 싫다고 해도 항상 맞아야 하니까 매일 매일 맞을 때 마다 눈감고 빨리 맞고 할머니랑 밥을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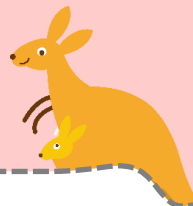
엄마가 저녁에 데려와서 집에 가서 엄마랑 어린이집 다닐 때 이야기를 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당뇨캠프 말고는 친구를 못 보고 민하를 보고 싶다고 엄마한테 말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마다 병원에 가야해서 짜증난다고 말했다. 친구들은 매일매일 어린이집을 가는데 나는 집에만 있고 병원 가야하고 엄마한테 캠프를 더 많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서원이는 오늘도 엄마한테 짜증내서 미안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이랑 같이 식물도 심고 병원놀이를 했던 생각이 나서 울컥 눈물이 나왔다. 엄마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어서 엄마한테 미안해졌다.



이름	황서원
나이	7살
성별	여 (女)
직업	1형 당뇨 환자 4살 발병

# Persona

Main target



**이름** 정용훈  
**나이** 41살  
**성별** 남 (男)  
**직업** H 자동차 연구원

## Goals & Ro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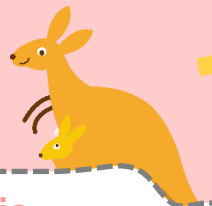
내 아이가 다시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 Needs

진짜 **당뇨**가 맞는지 **확인**  
지금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인 상태 정보 취득**  
바른 **생활습관** 마련을 위한 정보 취득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창구** 모색  
아이에게 상황 정확히 **인지**시키기

# Persona

## Main target



## Scenario



**이름** 정용훈  
**나이** 41살  
**성별** 남(男)  
**직업** H 자동차 연구원

재운이가 어릴 때부터 조금 통통하기는 했어도, 아직 어린 아들이 당뇨 진단을 받게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용훈 씨는 아들에게 지금의 삶은 다 키로 가면서 빠진다고 먹고 싶은 것들 다 먹으라는 말을 했던 과거의 자신을 책망한다. 용훈씨는 아들이 잘먹는 모습이 좋았을 뿐인데 식단을 관리해주지 못하고 병을 얻게 한 것이 다 본인 탓은 아닐지 늘 후회하는 요즘이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건강하고 좋은 것만 먹이고픈 마음이다.

아들에게 부족한 것 없이 다 해주고 키웠던 용훈씨에게, 먹어도 괜찮은 것과 먹으면 안되는 것을 찾아보는 경험이 낯설지만 하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면 먹을 것을 사서 아들과 함께 야식먹는 것을 즐겨했지만 재운이가 병을 얻고 난 이후로 재운이가 먹고싶은 것도 못 사주니 아들과 점점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재운이의 당뇨 진단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 매년 진행하는 학교 건강 검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갔었는데, 5학년이 된 재운이의 소변 검사 수치가 이상하다며 병원에 다녀오라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았을 때조차도 용훈씨는 별 일 아닐 거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동네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은 2형 당뇨였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동네에 있는 병원이란 병원은 다 가보고, 당뇨 전문 병원부터 대학 병원까지 총 6차례 방문을 해보고 나서야 '당뇨'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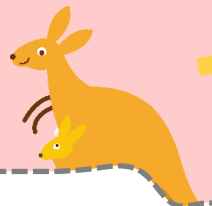
용훈씨는 갑작스러운 재운이의 당뇨 소식에 무작정 검색을 시작하며 정보를 모으고 있던 하지만, 아직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급히 바꾼 식단으로 재운이가 적응하기도 힘들고, 평소에 식단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어떤 식습관을 어디서부터 바꿔나가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 소아당뇨는 모든 음식의 성분을 알고 세심하게 조절이 필요하더니, 시중에 나와있는 성분표는 걱정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다. 용훈씨는 주변에 당뇨에 걸린 자식을 둔 가족도 지인도 없기에 전문적인 정보를 물어볼 곳도 없다.

용훈씨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수록 마냥 막막하다. 아내는 외국계 기업 G사에서 근무 중인데, 최근 근무지가 미국으로 변경되어 5년 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재운이에 대한 케어가 온전히 자신에게 달려있는 상황 속, 아내는 조심스레 용훈씨의 휴직 혹은 퇴직을 제안한다.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던 길이지만, 재운이를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회사 따위는 때려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용훈씨다. 다만 이미 당뇨는 발병했는데, 집안일부터 당뇨 환자 도우미 업무까지 당장 배울게 너무 많아 뭐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할까 불안감이 온 몸을 덮친다. 심지어 건강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재운이는 물론 용훈씨까지 살면서 본격적인 운동이라고 집 앞 편의점 다녀오기 정도밖에 해본 적이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게 처음인 이 상황 속, 용훈씨는 자신과 아들을 위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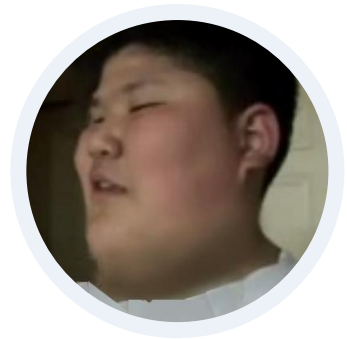
# Persona

Main target



## Goals & Roles

예전과 같이 아빠와 함께 맛있는 것 많이 먹으며 보내고 싶고  
소아 당뇨라는 사실이 내심 두려워서 살을 빼고 싶다.



## Needs

아빠와 야구보는 시간이 많았으면 함  
태권도장 말고 집에만 있고 싶음  
**집에서 운동** 할 수 있었으면 함  
**살 안 찌고 맛있는 간식**이 생겼으면 좋겠음

**이름** 정재운  
**나이** 12살  
**성별** 남 (男)  
**직업** 2형 당뇨 환자  
올해 진단

# Persona

Main target



## Scenario

재운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이다. 아빠가 일 끝나고 올때 항상 치킨이랑 콜라를 같이 먹는게 제일 좋고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다. 아빠랑 치킨 먹으면서 함께 야구보는 것이 제일 재밌었고 두산 경기가 제일 재밌다.

하지만 5학년 이후로 아빠가 치킨을 사주기는 커녕 이제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고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잔소리를 한다. 잔소리 하고 매일매일 운동을 하라고 친구도 없는 태권도장을 가게 했다. 태권도장을 가도 친구도 없어 가지고 재미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친해진 애들 몇명 생겨서 매일 가고 있다. 재운이는 태권도장을 다니기 전에 유튜브로 허팝 영상 보면서 친구들 이랑 노는게 제일 좋았는데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게 짜증났다. .

또 오늘 짜증나는 일이 있었다. 엄마가 이제는 밖에서 미국으로 가야한다고 하고 아빠는 맨날 회사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한다. 그래도 아빠 몰래 마트에 가서 친구들 이랑 초코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 그 맛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아빠가 5학년 때 건강검진 마치고 소아 당뇨라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조금 무섭다. 그래도 건강 관리하고 운동하면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엄청 무섭진 않은데 아빠가 귀찮게 해서 짜증난다.

또 태권도장을 가면 나는 사이즈가 맞는 도복이 없어 가지고 어른용을 입어야 한다고 관장님이 그러셨다. 그래도 친구들보다 내가 키는 더 크니까 괜찮은데 친구들이 가끔 뚱뚱하다고 말할 때면 마음 아프다. 장난으로 던지는 말인데 슬프긴 하지만 나도 놀려서 괜찮다. 태권도 끝나고 너무 더워서 시원한 콜라 하나 들고 집에 갔는데 아빠한테 또 혼났다.

이런 거 먹으면 안되는데 왜 계속 사먹냐고 뭐라고 하셨다. 또 용돈을 안 주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싫다. 소아 당뇨가 뭐라고 이제 는 치킨도 자주 안 사주고 초콜릿 이나 달달한 거 사 먹을 때 마다 잔소리가 아주 귀에 딱지 생길 거 같다. 5학년 전에 매일 먹고 싶은 거 먹을 때로 돌아 가고 싶다. 엄마도 외국 안 갔으면 좋겠고 집에 가끔 혼자 있을 때 심심하다.

아무튼 당뇨병이 뭐라고 얼른 운동 열심히 해서 당뇨병을 지우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



**이름** 정재운  
**나이** 12살  
**성별** 남 (男)  
**직업** 2형 당뇨 환자  
올해 진단

# Persona

## Sub target



**이름** 강현진  
**나이** 36살  
**성별** 여 (女)  
**직업** 가정주부

### Goals & Roles

내 아이가 올바른 식습관을 자발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형성했으면 좋겠다.

### Needs

아이와 함께 놀며 가르칠 수 있는  
유아 친화적인 생활 습관 개선 플랫폼  
올바른 육아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얻기  
유아에게 좋은 음식 및 식단에 대한 정보 얻기

## Scenario

초보 엄마 현진씨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 민하 일이라면 뭐든 걱정이 많다. 민하가 아기였을 때만 하더라도, 애가 아는게 별로 없으니 건강한 음식만 주는 게 쉬웠다. 하지만 이제 민하의 나이는 4살, 유튜브를 엄마보다 많이 찾을 시기. 아무리 좋은 콘텐츠만 찾아 보여주려 해도 꽤심한 알고리즘은 자꾸만 민하에게 과자 광고, 아이스크림 광고를 보여준다. 임신부 시절 읽었던 육아책에는 '어릴 때 제대로 된 식습관을 형성해야 성인까지 건강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었기에 좋은 음식만 먹이고 싶은데, 민하가 졸라 대면 어쩔 수 없이 '이번 한 번만'하며 과자를 건네주던 현진씨는 이리다 민하가 과자에 중독돼서 비만이 되면 어쩌나, 키가 안크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걱정을 남편에게 토로할 때마다 그는 '애들은 알아서 크는 거야'라며 안일한 소리만 해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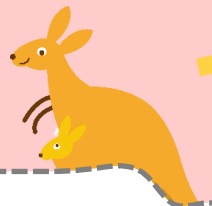
지금도 이런데, 좀 더 나이가 들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또래 친구들을 따라 불량 식품에 더욱 맛 들이게 될까 지금 좋은 식습관을 형성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현진씨는 하루 종일 맘 카페를 뒤지며 아이 식습관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민하가 아기였을 때부터 이용하던 '서울맘카페'는 유용한 정보가 많지만, 워낙 유저 풀이 방대하다 보니 원하는 정보만 추려 찾기가 힘들고, 최근 들어 광고성 글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온전히 신뢰하기도 힘들어졌다.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음식만 골라 먹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고민이 되는 현진씨다.

한 편으로는 민하와의 관계도 걱정이다. 아직 어린 민하는 좋은 식습관을 갖는게 왜 중요하진 이해할 리 없다. 잘 먹어야 키 크지, 하며 먹기 싫다는 채소를 먹여보려 해도, 민하는 '키 안 커도 괜찮아!'하며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러다 보니 매 식사마다 전쟁이다. 초록색만 보이면 안먹겠다는 민하와, 다 먹기 전까진 식탁을 떠날 수 없다고 강요하는 현진씨와의 치열한 사투. 문득, 현진씨는 민하가 자신을 '맛 없는 것만 먹으라고 하고, 맛 있는 건 못 먹게 하는 못된 엄마'라고 생각할까 두려워진다. 민하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 게 요즘 삶의 유일한 낙인데, 민하에게 두고두고 미움을 받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다. 식사 시간이 오는게 점점 두려워진다.

이런 걱정을 비단 나만 하는 것은 아닐텐데. 페이스북을 통해 보는 육아 중인 친구들은 참 신기하게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인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브로콜리라며, 아이가 웃으며 브로콜리를 먹는 사진을 업로드하는 친구 윤혜, 아이와 함께 채소를 키우기까지 하는 친구 정희 등, 우리 민하만 빼면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알아서 잘 찾은 것만 같다. 다른 아이들처럼, 민하도 스스로 건강한 식단을 찾게 만들 수는 없을까? 편식하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동화책들을 찾아 읽어줘 보지만, 민하는 '재미 없어! 유튜브 볼래!'만 외친다. 결국 유튜브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 관련 애니메이션을 보여줘 보기도 하지만, 지루한 걸 못 참는 민하는 식습관 설명 파트만 나오면 10초 넘기기를 주저없이 클릭한다. 일방적인 시청이 아닌, 몸으로 체험하며 엄마와 함께 배우는 콘텐츠가 있으면 좋을텐데. 뭐 좋은게 없을까? 고민만 커지는 현진씨다.

# Persona

## Sub target



### Scenario

누군가 민하에게 '단짝 친구가 누구야?'라고 묻는다면 민하는 주저없이 '엄마, 그리고 유튜브!'라고 대답할 것이다. 활발한 성격의 민하는 뛰어 노는 걸 좋아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밖에 나가질 못한다. 처음에는 그게 불만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밖에서 뛰어 노는 대신 캐릭터들이 뛰어 놀고 신나는 노래를 부르는 유튜브 콘텐츠를 즐겨 보며 대리 만족을 느낀다. 특히 좋아하는 건 핑크퐁. 동물을 좋아하는 민하에게 알록달록 귀여운 동물 캐릭터들이 노래를 부르는 핑크퐁 영상은 최고의 콘텐츠다. 호기심이 많은 민하는 핑크퐁 말고 다른 캐릭터들도 알고싶는데, 아직 한글이 서툴러 직접 검색은 무리다. 핑크퐁 영상을 보면 아래에 뜨는 연관 영상을 클릭하며 새로운 동요, 새로운 캐릭터를 찾아 나서곤 한다. 연관 영상을 타고 타고 들어가다 보니, 요즘은 어린이 먹방에 꽂혔다. 내가 처음 보는 과자, 아이스크림, 젤리가 이렇게나 많았더니! 새로운 간식을 발견할 때마다 엄마에게 사달라고 조르지만, 엄마가 OK하는 경우는 10번에 한 번. 난 이미 내 키에 만족하는데, 자꾸 키가 안 크다며 거절하는 엄마가 민하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왜 엄마는 맛 없는 야채만 먹으라고 하고, 맛있는 젤리는 안줄까? 민하가 제일 싫어하는 시금치가 밥상에 올라오는 날이면, 다 먹기 전까지 식탁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엄마가 미워져 눈물이 나기도 한다.

그래도 민하는 엄마가 좋다. 특히 좋아하는 건 엄마랑 하는 잡기 놀이, 그리고 엄마한테 동요 불러 주기! 얼마 전 아파트 아래 층에 새 가족이 이사 오면서 잡기 놀이는 금지됐지만, 동요 부르기는 아직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쉽게 질리는 성격의 소유자인 민하는 부를 동요가 늘 부족하다. 더 많은 동요, 더 많은 캐릭터들을 알고 싶다. 잡기 놀이를 대신할 새로운 놀이도 필요하다. 엄마는 숨바꼭질은 어떨냐며 제안하지만, 좁은 집 안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은 너무 한정적이다. 처음 한 두 번은 재미있게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숨을 곳을 찾을 수 없어 숨바꼭질에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민하.

요즘 민하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엄마랑 장 보러 가는 시간이다. 코로나19때문에 위험하다며 자주 데려가주진 않지만, 한 번 같이 장을 보러 가면 엄마가 민하가 먹고 싶은 과자나 젤리를 한 개씩 사주기 때문이다. 그 중 민하의 최대 간식을 하나 뽑아보라면 '쿠키다스'다. 바삭바삭 재미있는 식감에 달달한 맛, 하나하나 까먹는 재미까지 민하의 취향을 저격했다.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한 통을 다 먹을 정도로 쿠키다스를 좋아하다 보니, 엄마는 쿠키다스를 잘 안 사준다. 대신 '어린이용 유기농 쌀 과자'를 종종 사주는데, 망명해서 맛도 없고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민하. 과자는 맛있어야 과잔데. 그래서 민하는 생일 날만 손 끝 기다리고 있다. 생일날엔 엄마가 먹고 싶은 것 다 먹게 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가끔 민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유튜브에 나오는 친구들은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잘 자는데, 왜 나만 못 먹게 하지? 또래 친구가 없어 유튜브로 접하는 친구들이 세상의 전부인 민하는 답답하고 억울하다. 엄마는 과자를 안좋아하는 게 분명해. 엄마처럼 과자를 안 좋아하는 어른 말고, 과자를 좋아하는 또래 친구들이랑 대화가 더 잘 통할 것 같다.



이름	김민하
나이	4살
성별	여 (女)
직업	당뇨 無

### Goals & Roles

엄마가 내가 하고싶은 대로  
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 Needs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동요  
엄마랑 재밌게 놀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맛있는 것만 골라 먹기  
과자를 좋아하는 친구 사귀기

당순하게



# Concept Brief



소아 당뇨를 앓고 있는 아동과 그 보호자들을 위해 아동 친화적인 당뇨 관리 플랫폼을 제공해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도록 돕고, 아동이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돕는다.

### Issue

어떻게 하면 소아 당뇨 환자와 그 부모가 신뢰도 높은 정보를 얻고 쉽고 편리하게 당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 Differentiation points

- 유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캐릭터' 기반 사업 확장**
- 유아의 자발적인 당뇨 관리를 보조
- 후기 데이터 기반 영유아 맞춤형 식단 추천



메인 캐릭터: "아깽이"

-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며 함께 생활하는 캐릭터인 캥거루
- "아깽이" 는 팀명의 A+ 과 캥거루의 kang을 결합

### Potential

- 식단 배송과 같은 유료 멤버십으로의 확장 가능성
- 저당 식품 업체와 당뇨 보조기구 업체 연계를 통해 앱 내 쇼핑몰 오픈

서비스명 "당순하게":

보호자가 편리하게 정보 이용을 하고자 하는 니즈를 담은 단어 "단순하다" 의 뜻과, 아이들이 당뇨에 부담이 가지 않고 즐겁게 "순한" 당뇨 섭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서비스의 목표를 담은 단어

### Target customers & Benefit

#### Main: 소아당뇨 환자의 보호자 및 본인

##### 부모

-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소아당뇨와 관련된 **다양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 획득
- 아이의 신체 상태와 발병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보** 획득
- **당 성분 분석 툴과 트래킹** 기능을 통해 시중에 나와있지 않은 **자세한 성분 정보** 획득
- 커뮤니티 내 유대감 형성을 통한 **심적 안정감** 상승

##### 자녀

- **캐릭터 및 애니메이션**과 같은 아동친화적인 요소를 통해 식단과 생활 습관을 즐겁게 바로잡을 수 있음
- 앱 내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해 다른 아이들과 다른 자신에 대한 **우울감 극복**

#### Sub: 당뇨가 아닌 유아와 부모

##### 부모

- 아이의 건강한 식단과 올바른 육아법을 위한 정보 획득
- 아이가 거부감 없이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음

##### 자녀

- 좋아하는 캐릭터를 통해 즐겁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음

당순하게



감사합니다

A+ddict 문서현 유재훈 이정운 정두용 황채원